

# 해외 사례로 본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 I. 논의의 배경

### 1.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전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하기 어려운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실현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고속 성장한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비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정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의료비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로 채워지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여 민간의 의료 공급조차도 공공의 서비스로 인식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에서는 민간의 의료기관이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도적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 산정과 통제는 병원에게 수익성 확보에 대한 압박을 가중



글·고 은 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시켜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 행위를 발생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나는 본인 부담 비용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그에 합당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기준에 대한 규제는 다양한 형태/기능을 갖춘 병원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설립에 있어 비의료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불허하고, 누적된 이익 잉여금으로만 자본을 조달하도록 하는 등 병원 소유 형태에 대한 규제 및 영리법인 병원 허용 금지는 병원의 경영 활동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2.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대한 논란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문제는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한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로, 오랜 기간 동안 찬성과 반대 양 측면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쉽게 그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각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데, 먼저 가장 밀접한 이해 관계자인 의사들의 입장도 약간 차이가 있다.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은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병원 간에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이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의 경우는 의료계에 비의료인이 진출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향후 더욱 치열해질 병원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요한 한 축인 소비자들은 영리법인 병원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논의의 핵심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리법인 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 즉 의료의 양극화와 의료기관의 이윤 추구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천 송도 지구,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설립될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영리법인 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 병원 문제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허용 가능성과 그 시점에 대해 쉽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송도 등 경제특구에 진출이 확정된 외국 병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국내 병원들 또한 경제특구 이외에도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볼 때도 비영리법인 병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언젠가는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II. 해외 영리법인 병원 사례

국내의 영리법인 병원 허용 시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영리법인 병원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은 국가별로 그 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나라마다 병원의 유형 및 유형별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의 영리법인 병원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기 이전에, 각국의 보건의료 체계와 병원의 역할 등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 태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미국 : 비영리 병원의 수익성 개선 목적으로 영리 전환

미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다른 OECD 국가들처럼 공공 부문에서 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의 민간 보건의료 체계는 관리의료(Managed Care)라고 불리우며,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가입자들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보험 관리 기구) 조직이 중심이 되고 있다. 물론 연방 및 주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의료보장(Medicare)

과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Medicaid) 등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체계라고 해서 모든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미국 병원은 비영리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설립된 경우가 많으며, 대신 세금을 감면받거나 정부 보조 및 기부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주식시장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영리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다. 당시 비영리병원들에게 지원되던 자선 기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이 병원들이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고, 산업 내 경쟁 격화로 많은 병원들이 도산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비영리 기관들이 벤처 자금, 상장 기업 출자, 전환사채 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수용하면서 영리기관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전체 병원 중 18%가 영리병원으로, 최근 30년간 그 비중이 약 4% 포인트 가량 늘었다. 이러한 병원 소유 형태의 변화는 HMO 가입의 확대 등 건강보험 영역에서의 영리화를 동시에 촉발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영리병원은 기존 공공/비영리병원이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서 성장한 것이므로, 실제 그 역할과 기능에서 영리/비영리의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높은 진료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의 질적 수준은 비영리병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리병원은 고가 의료 장비의 사용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 집중하여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영리적 동기에 의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한데 여기에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비영리병원과 비교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자율성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측면에서 비영리병원보다 못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현재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영리병원들의 순이익률을 보면 적자에서부터 20%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여, 영리병원 간에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신 비영리병원들은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기부, 부대 수익 사업이나 위탁 경영 제도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미국의 의료 산업이 철저히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으며, 영리와 비영리 구분 없이 병원 간 완전한 경쟁 체제에 돌입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 2. 싱가포르와 태국 : 국부 창출 산업으로 영리병원 육성

### (1) 싱가포르

미국 이외에 영리병원 체제가 발달해 있는 나라로 싱가포르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의료 체계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책임' 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는 공공 부문의 보장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한 싱가포르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고 보건의료, 금융·보험, 물류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이를 의료서비스 산업(Health Industry)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국·공립병원과 민간 병원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였다. 민간 대형 병원에게 주식회사형 병원을 허용하여 주식 상장, 의료 광고, 프랜차이즈 사업, 건강기능식품 판매,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10여 년이 지난 현재 싱가포르는 명실공히 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성장하였다.

싱가포르의 영리병원 사례는 빈약한 수익구조 탈피를 위해 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이 일어난 미국의 사례와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싱가포르의 영리병원들은 공공 병원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고급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 환자를 유치함으로써 국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에서 육성되었다. 실제로 싱가포르의 대표적 영리병원인 Mount Elizabeth 병원이나 Raffles 병원 등은 세계 수준의 의료기술을 토대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는 물론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글로벌 마케팅에 중점을 둔 결과 외국인 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의 3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태국

싱가포르와 함께 의료서비스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는 나라로 태국을 들 수 있다. 태국 병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는 2005년 128만 명에 이르며, 이들 환자들은 330억 바트(약 8.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공공의료 중심의 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지난 1967년 병원에 대한 외국 투자 자본 유입을 허용함으로써(전체 자본의 49%까지) 의료시장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낮은 의료기술 수준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1980년대 들어 관광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의 접목을 통해 급성장하였다. 특히 고소득 국가의 고령자 층을 대상으로 한 간호, 간병 서비스에 특화함으로써 태국은 이른바 전세계 ‘의료 관광(Medical Tour)’의 대표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

태국의 경우 병원 중 21%가 영리병원이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2005년 현재 13개의 민간 영리병원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태국 정부는 민간 의료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수가에 대해서도 병원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태국 영리병원의 진료비는 비영리병원에 비해 약 3~4배, 개인 의원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비 수준은 인근의 싱가포르나 유럽 등의 50~70%에 불과한 수준으로, 외국 환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생명보험 회사들과 민간 영리병원과의 협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영리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국은 수출 진흥국, 관광청, 투자위원회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 병원협회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아시아 의료 시장의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3. 유럽과 캐나다 : 공공병원의 역할 보완 위해 영리병원 허용

지금까지 살펴 본 미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사례와 달리, 유럽과 캐나다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강한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보장적인 의미가 강하므로 영리병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은 공공/비영리병원이며, 영리병원의 비중은 대개 5% 미만이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영리병원을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 대신 공공의료 하에서 나타나는 고급 의료의 공급 부족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환자들에게 높은 진료비를 부과하고, 이의 대가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적 병상(Pay Bed)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에서 종사하는 전문의들이 일과 시간 후 민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민간병원의 진료 활성화와 공공병원의 대기 시간 단축을 유도하는 등, 공공의료 중심의 체제 하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강조되는 보건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캐나다의 경우 현재 전체 병원 중 2%를 영리병원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마찬가지로 대기 시간 증가에 의한 의료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영리병원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영리병원을 허용하긴 했지만 미국의 경우와 같은 의료수가에 대한 자율성은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요양, 일부 수술, MRI·CT 검사, 성형·미용 등 일부 진료 과목에 한정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이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그 예로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영리병원 주주들의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6.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캐나다의 경우 영리병원은 미국의 영리병원과 같이 단순히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공공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 III. 우리나라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 방안

#### 1. 한국형 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적합한 영리병원의 모델을 유추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당한 모순점을 안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상황에서 미국식의 영리병원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뒤따를 것이다. 미국식 영리병원 모델은 보건의료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국가 관리능력, 민간보험-의료기관-소비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시장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현하였다. 그러나 겉으로는 통제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관리 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내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지금 당장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민간 영리병원에 대한 통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현재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의료 소비자 간, 의료 공급자(대형 병원-중소 병원) 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유럽/캐나다 모델의 경우는 제한된 허용과 적절한 규제를 통해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들 국가의 민간 영리병원은 단지 공공 의료기관에의 장기 진료 대기 환자를 줄이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적용에 따른 기대 이익이 큰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다. 캐나다는 현재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찬반 논쟁을 20년간 지속한 이후, 성형수술, MRI 클리닉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였다. 즉 영리병원의 허용 범위를 고가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극히 일부의 진료과목에 국한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리병원 유형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현재 국내에서도 성형·미용, 고급 검진 등의 분야는 이미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병원 등의 형태로 대형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애초에 영리병원 허용으로 기대했던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 병원 운영 효율성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필요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일차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감안한다면, 우리 사정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싱가포르의 영리병원 모델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된 공공의료 체계의 바탕 위에 고급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해외 환자 유치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육성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는 참조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싱



가포르는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영리병원을 국부 창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인천 등 경제특구의 외국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허용한 것은 개방에 대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에 개설될 영리병원은 일차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국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급 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후 경제특구 이외의 지역에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한다면 이에 앞서 영리병원의 허용 범위, 허용 지역, 허용 가능한 규모 및 진료 분야 등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리병원의 개설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영리병원이 난립하게 된다면, 의료의 공공적 측면을 유지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기에 앞서 영리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나 규제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역할 관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영리병원 허용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에 미칠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엄격한 분석 및 평가와 보완 체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급성질환을 국가가 관리하는 등 공공의료 부문의 부실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

영리병원의 허용은 무엇보다도 수가의 현실화 및 진료비 지불 제도의 개편, 요양기간 계약제 등을 통한 의료기관 간 경쟁 원리 도입,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에서의 영리 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사전적으로 조성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의 일차적인 목표는 수익성 제고가 될 것이므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 제도 하에서는 과잉 진료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행위별 수가 제도 하에서는 병원들이 수가 규제의 영향을 피해 비급여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지만, 진료비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포괄수가제도 하에서는 자연스럽게 병원들의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이 예외 없이 요양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현재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기관들이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를 대리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건강보험이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규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비보험 시장이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경우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 원리 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 확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공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공보험이 부담할 수 없는 비급여 부문에 대해 제한적으로, 즉 공보험을 보완하는 형태로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고액의 의료비가 소요되는 중증 질환은 공보험이 담당하고, 민간보험에서는 공보험에서 급여하지 않는 나머지 부문에 대해 실제적인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 IV. 시사점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영리병원의 허용은 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병원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영리병원 허용은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제고하여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중심적 진료 등 차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영리병원은 고급 의료를 추구하는 소비자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 시장에서의 의료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

이다. 부대 수익사업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해 경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병원들의 수익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이윤 배당과 재산 귀속에 대한 규정을 합법화하여, 실제로는 이미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영리병원들의 편법적인 이윤 환원 행태를 바로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해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료기술 혁신, 제약·바이오 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의 과정에서 영리병원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영리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대다수 병원들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 과목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위축될 수 있으며, 민간 영리 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의료 시장이 재벌이나 민간 보험사들의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지배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지만 영리병원 허용에 있어서는 명확한 허용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현재 보건의료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각 주체인 병원, 보험공단, 민간 참여자, 소비자 간의 상호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KHA**

※ 참고문헌

-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KERI, 2005
- 신영전, 미국 보건의료부문 영리화가 우리나라 일차 의료에 주는 정책적 함의, 가정의학회지, 2005

이계문, 최근 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현황과 시사점, 주태국대사관 보고자료, 2005

전창배 외,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M.A.Morrisey, Not-for-Profit Survival in a Competitive World, Frontiers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2006

Wharton School, Medical Tourism : Things being Equal, I'd Rather Be In Bangkok, WHLE, 2007